

조이스의 해체주의: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부재와 그 인식*

김 상 호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주의에서 “중심부재” 이론의 핵심은 “중심의 현존”을 믿는 구조주의적 관념을 해체하는 것이다. 데리다는 구조주의가 “초월적 기의,” 즉 “중심”(center)의 “완전한 현존”을 믿는다고 전제하면서(1978, 279-80), 그 중심은 기호 속에 현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기표는 다른 기호와의 관계됨으로써 기의를 지니지만, 그 기의는 또 다른 기표들의 관계 속에서 “차연”(différance) 개념을 통해 “연기된 현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Derrida 1982, 3-9), 그 중심은 하나의 환상이거나 혼적이며, 그것의 대체물로 존재한다(Derrida 1978, 280). 중심의 현존을 부정하는 것은 유희를 통한 의미화 과정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시작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사이드(E. W. Said)의 지적처럼 “시작”은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xvii)이며,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행위”(xv)이다. 이와 같이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전제한다. 인간들의 삶 역시

* 이 연구는 2002년도 안동대학교 해외파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이러한 새로운 시작행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중심을 찾고, 다시 그 중심은 부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또 다른 시작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한다.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은 바로 이러한 과정의 연속을 이루면서 삶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다. 그의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은 인물들이 구조주의적 상황이나 그 해체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어디엔가 존재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삶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조이스 작품의 주제가 “현존과 부재의 순환”(Battaglia 41)을 통해 제시되며, “스티븐(Stephen Dedalus)에게 반복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Requelme 234)는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중심이 부재한다 하더라도 현실과 초월적 대상이라고 믿는 것 사이의 틈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이스는 이러한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를 그 주제로 설정했으며(Letters 83), 이 마비의 주제는 데리다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해체의 대상으로 삼았던 구조주의적 상황, 즉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의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 표현된다. 더블린 사람들이 중심의 현존을 믿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비된 삶을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삶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한다. 구조주의적 관념이 『더블린 사람들』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구조주의적 양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구조주의적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블린 사람들의 중심의 현존에 대한 믿음과 중심부재의 인식 과정을 천착하는 것은 조이스의 이러한 해체주의적 의도를 밝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유년기’ 작품의 소년들은 더블린의 현실을 통하여 중심의 부재를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청년기’ 작품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삶과 환경에서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삶을 새로이 시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다시금 마비된 삶으로 되돌아간다. ‘성년기’ 작품의 주인공들은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식을 수반하지 못하므로, 삶에 대한 시작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원래

의 마비된 삶 혹은 그보다 더 마비된 삶을 선택한다. ‘공공생활’의 주인공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심부재에 대한 어떠한 인식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는다. 「죽은 사람들」(“The Dead”)의 게이브리얼(Gabriel Conroy)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 심각하게 중심의 현존을 믿는 인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이 중심의 부재를 인식한 ‘유년기’ 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더욱 심각하게 더블린의 마비된 환경에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주듯이,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주로 구조주의적 상황에 구속된 인물들, 즉 중심의 현존을 믿는 인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사람들」과 『더블린 사람들』의 마지막에서 게이브리얼이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와 그 인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고는 이러한 가설을 증명함으로써 조이스의 해체주의적 의도와 그 지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유년기’ 생활을 묘사한 세 단편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중심의 현존을 믿고 추구한다. 주인공 소년들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블린의 성인들과 다른 점은 그들이 마비된 더블린의 현실에서 중심의 부재를 인식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의 마비가 극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자매」(“The Sisters”)에서 소년은 마비의 주체인 신부와 마찬가지로 중심의 현존을 믿고 추구하지만 곧 그 중심의 부재를 인식한다. 소년이 신부를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듯이, 신부는 소년에게 “부성의 원형”(Tindall 14)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신부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불완전한 인물”(Wohlpart 409)로 드러난다. 이 작품은 소년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과정 즉, 소년이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신부의 존재와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고, 신부의 “이상하고,” “괴상한”(1) 행적에 대한 코터 노인(Old Cotter)의 이야기 속에 내재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려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 의문은 그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파악하려는 과정을 거쳐 이피퍼니의 순간을 통해 완성된다.

신부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신부가 죽기 전에도 소년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매일 밤 창문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그는 ‘마비’라는 말을 혼자 조용히 중얼거렸으며, 그 말이 유클리드의 기하학에 나오는 ‘노면’이나 교리문답서의 ‘성직매매’라는 말처럼 언제나 이상하게 들렸다”(1)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소년은 이제 ‘마비’라는 단어가 “어떤 사악하고 죄 많은 존재의 이름처럼” 들림을 의식하고, 그 말에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의 치명적인 위력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1). 이러한 충동은 신부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의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꿈을 통해 구체화된다.

소년의 꿈속에서 그를 뒤따르는 신부의 존재는 “중풍환자의 둔중한 회색빛 얼굴”(3)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은 “답요를 뒤집어쓰고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만, 신부는 “어떤 중요한 일을 고백하려는”(3)듯 계속해서 그를 뒤따른다. 소년이 신부를 애써 피하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억압적인 종교의 의식으로 야기된 두려움으로부터 도피하는 것”(Peake 10)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가 신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한 곳이 “어떤 즐겁고 사악한 지역”(3)이라는 것은 신부에 대한 반대감정이 병존하는 소년의 심리적 현상, 즉 신부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죄를 고백하는 신부의 고해성사를 수락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분열된 감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상태는 소년이 상가로 가서 신부의 죽은 모습을 보고 싶지만 감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거나, “죽음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감정을 가진 자신에 대해 노여움을 느끼는 데서도 드러난다(4). 또한 그러한 현상은 상가를 방문했을 때, 소년이 신부의 자매인 내니(Nannie)가 원하는 크림 크래커(cream crackers)와 포도주(sherry)를 거절하지만, 잠시 후 탁자로 다가가서 그 포도주를 맛보는 상황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소년이 내니가 권했던 포도주의 맛을 보는 것은 “나약하고, 귀먹고, 마비된 아일랜드 교회의 유혹에 직면한 소년의 혼란스러운 헌신”(Magalaner 1959, 80)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는 그 혼란스러운 헌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소년은 “그것이 중풍으로 죽었다”(3)는 사실을 상기하면서도, “마치 성직매매자의 죄를 사면해 주듯” 그를 바라보며 “힘없이”(feebly) 웃는다(3). “힘없이”라는 표현은 신부가 자신의 죄를 사면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소년이 그 요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그는 그러한 의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느꼈을”(3) 뿐이다. 그러므로 소년의 미소는 신부의 죄를 “조롱하는 미소”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Wohlpart 412). 이처럼 조이스가 이 작품에 꿈을 삽입한 의도는 “마지막으로 소년이 신부의 부패한 행위의 심도를 통찰하도록 하는 그의 무의식으로부터 솟아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소년에게 “각성의 이피파니를

예비하는” 것이다(Brunsdale 12). 꿈의 그 다음 부분에서 소년은 “기다란 벨벳 커튼과 흔들리는 고풍의 램프”(5-6)로 장식된 “아주 먼 곳에 있는 풍습이 이상한 나라, 페르시아”(6)에 와 있음을 느낀다. “그 풍습이 교회의 복잡하고 신비한 풍습과 흡사한”(Corrington 20) 페르시아의 분위기는 “더블린의 종교가 신비하고 마술적인 의식이라는 그의 내면적 직감을 반영”한다(Peake 15). 신부가 반영하는 종교는 소년이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므로, 꿈은 소년이 그가 살고 있는 세계, 관습이 이상한 나라, 즉 마술적인 종교로부터 도피하여 자유를 얻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인 것이다. 결국 소년은 일라이자(Eliza)가 신부의 생전의 행적을 설명할 때 현현의 순간을 경험하고 신부의 마비된 실체를 발견함으로써 “교회를 통한 도피의 환상”(Corrington 25)에서 자유롭게 되고, 꿈을 통해 표현되었던 자신의 도피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뜻밖의 만남」(“An Encounter”)에서 소년은 “학교생활의 억압적인 영향력”(13)과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도피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게 된다. 소년이 “일종의 반항정신”(11)을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는 것은 그에게 현실 혹은 성인세계는 너무나 지루하고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인세계를 대변하는 버틀러 신부(Father Butler)는 아버지가 없는 소년에게 부성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그는 결코 그러한 존재로 제시되지 않는다. 억압적인 예수회 학교와 권위적인 버틀러 신부는 소년에게 부성의 권위와 관습적인 질서를 강요하며, 소년은 그러한 권위와 질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욕망한다. 그 도피의 목적은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고 우의를 나누어줄 그러한 아버지”(Kaye 92), 즉 새로운 정신적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소년의 정신적 아버지는 피전하우스(Pigeon House)로 상징화되어 있다. 더블린의 발전소(electric light and power station)인 피전하우스는, 그 이름이 지닌 빛(light)과 힘(power)의 상징으로 보아 신을 의미하며, 또한 “아버지의 상징”(Magalaner 1956, 77)으로 제시된다. 그러므로 그의 탐색여행은 “부성추구”로 정의될 수 있다(Tindall 17-18). 그러나 소년은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악하고 타락한 아버지의 모습과 대면하게 된다. 소년이 피전하우스로 가는 길에 만난 “이상한 노인”(18)은 그가 피전하우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인생을 이야기하는 다정한 아버지”(Kaye 92)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그에게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사악하고 타락한, 그리고 억압적이고 마비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다.

이 작품은 “오만은 죄악”이라는 또 다른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Tindall 19). 소년은 늘 친구 마호니(Mahony)를 다소 경멸했던 자신을 되돌아보고, 친구에 대해 가졌던 자신의 오만한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자각의 단계에 이른다. 결국 소년은 신부와 이상한 노인을 통해 제시되는 더블린의 종교와 사회의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모습과 자신의 오만한 모습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애러비」(“Araby”)에서 소년은 친구의 누이를 이상적인 여인으로 여기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허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틴달(Tindall)은 이 이야기를 “환상과 환멸 그리고 각성”으로 설명한다(19). 환상은 중심이 현존한다고 믿는 상태이며, 환멸과 각성은 중심부재의 인식을 의미한다. 중심부재의 이미지는 작품의 처음부분에서부터 암시되고 있다. 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막다른 골목”(D 21)은 더블린에서의 어떠한 탐색도 막다른 길에 이를 것이라는 암시를 내포한다(Collins 95). 그러나 소년은 책표지의 색깔이 노랗다는 이유로 신부가 소유했던 책 중의 한권을 좋아하고, 맹건(Mangan)의 누이의 환적인 이미지를 보고 그녀를 연모하며, 실재로는 자선심이 없는 신부를 보고 자선심이 강하다고 느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부와 더블린 사람들처럼 중심의 현존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심의 현존에 대한 믿음은 맹건의 누이가 이상적인 여인이며, 그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낭만적인 것이며, 애러비 바자가 자신의 이상을 충족시켜줄 환상적이고 신성한 곳이라는 믿음을 통해 표현된다. 소년에게 “그녀는 영성체의 성체를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과 마리아 혹은 신부처럼 자신을 정화하는 힘”(Collins 96)이며, 또한 소년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애러비 바자는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낭만적이고 이국적인 성취의 개념”(Brooks 93)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개념은 소년이 자신의 사랑을 낭만적인 사랑이라고 믿는 것에서 비롯된다.

소년은 바자를 절대적인 개념을 지닌 낭만적이고 이국적이며, 자신의 소원을 풀어줄 공간으로 인식했으나, 그 바자는 저속하고 천박하며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분위기를 대변할 뿐이다. 결국 그는 바자의 비천한 분위기를 통해 그 시장의 실체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진 자신과 자신이 숭배했던 여인이 시장에서 농담이나 하

며 시시덕거리는 남녀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인식한다. 그는 바자의 실제 모습에 실망하고 “어둠을 응시하면서” “허영에 내몰리고 조소받는 한 마리의 짐승 같은” 자신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번민과 분노”에 사로잡혀(28), 자신이 사랑의 허망한 욕망에 빠져 있었음을 인식한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유년기’ 소년들의 눈을 통해 더블린 사람들이 중심의 현존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믿는 그 중심은 현존하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부재하는 것이며 하나의 환상이거나 거짓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나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처음에는 더블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중심의 현존을 믿고 추구하지만, 자신들이 믿는 중심은 초월적 중심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준다. 그러나 ‘청년기’의 더블린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시작행위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청년기’ 네 작품의 주인공들은 자신들과 주변 환경의 마비상황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의지가 나약하여 다시금 중심의 심연으로 빠져든다.

「에블린」(“Eveline”)에서 주인공 에블린은 자신의 삶이 중심이 아님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지만,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가 나약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녀는 가정의 궁핍한 경제 상황과 무능한 아버지, 어머니의 억압적 담론, 그리고 당시 사회의 지배적 관념의 지배하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가정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있다.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할 아버지는 일정한 직장이 없고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잔소리만 늘어놓음으로써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가장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가부장적 가정의 현실은 남성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성인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제시되기도 한다. 어머니는 가정을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살다가 광기에 사로잡혀 죽음을 맞아야 했지만, 생전에 그녀는 딸이 가정을 위해 헌신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그녀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블린은 어머니가 죽은 이후 지금까지 궁핍한 “가정을 끝까지 돌보라고 한 어머니와의 약속”(33)을 지키고, “육체적, 정신적 고행과 인내의 전형”(Gifford 49)인 성녀 마거릿 메리 앨러코크(Blessed Margaret Mary Alacoque, 1647-90)와 채색 판화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가 그녀를 통해 신도들에게 계시한 12가지의 약속이 함축하고 있는 위로와 축복을 받기 위해(Wicht 127 참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그 삶

의 실체를 인식하고, 이제 프랭크(Frank)와 함께 황폐한 삶으로부터 도피하여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 아일랜드 대기근 이후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녀가 당면한 문제는 이 더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이다(Magalaner 1959, 120). 그녀는 이제 미지의 땅에서 결혼을 할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며, 어머니의 삶과는 다른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현재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되풀이한다면, 그녀의 삶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될 것이기에, 그녀는 그러한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위해 도피를 결심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보다 가혹한 징벌이 수반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처럼 선택의 순간에 그녀를 사로잡은 것은 “쾌락의 종말은 고통”이니 죽을 때까지 가정을 지키라는 어머니의 외침과, 앨러코크 수녀를 통해 계시된 약속, 즉 가정을 위해 헌신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시이다. 그녀가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면 복을 받겠지만, 가족을 버리고 도피하여 행복한 삶을 누린다면, 그녀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녀에게 구원은 행복한 삶이며, 그 행복한 삶은 쾌락이므로, 그 삶은 곧 고통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현재의 삶보다 더 큰 고통과 징벌을 수반할 것이다. 그녀는 현재의 삶을 두려워하지만,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의 정신을 압도하고 있다. 에블린에게 자기의 집과 더블린과 조국은 그녀가 버리고 떠나야 할 대상이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녀는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소망했던 도피의 기회가 왔을 때 “무기력한 동물”(34)처럼 움직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결국 그녀는 지금껏 그랬지만, 이제 영원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그녀가 익숙해져 있는 삶, 마비된 삶, 어머니의 삶, 더블린의 삶의 심연에 주저앉아 불모성으로 가득 찬 생중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경주가 끝난 후」(“After the Race”)의 주인공 지미(Jimmy Doyle)는 자신이 즐기고 있는 현재의 낭만적 삶을 중심이라고 믿지만, 곧 그 중심이 초월적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각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나약하여 이러한 마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조이스는 먼저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고든 베넷(Gordon-Bennett)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를 배경으로 설정하면서 더블린 사람들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마비 상황을 묘사한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으로 등장하는 더블린 사

람들은 “가난하고 무기력한”(40)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삶의 실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기꺼이 지배당하는”(40) 상황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조이스는 그들 중에서도 특히 아일랜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더블린 청년들 역시 마비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암담한 아일랜드의 현재와 미래를 투사하고 있다. 지미는 아버지가 자신과 조국을 팔아 형성해 놓은 부를 바탕으로 보다 세련되고 다양한 대륙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지미의 아버지는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적 이익에만 혈안이 된 사람으로서, 진보국민당원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했으나, 일찌감치 인생관을 바꾸어 호상(豪商)으로서 그 위치를 굳힌 인물이다. 그가 거상이 된 것은 정치적 변절과 조국에 대한 배신과 영국에 대한 협조 덕분이다. 아버지의 부를 바탕으로 지미는 “아일랜드에서 종교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Gifford 53)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1세가 설립한 더블린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일랜드를 식민지배하고 있는 영국의 카톨릭 대학과 케임브리지로 가서 인생공부를 함으로써 앵글로 아이리시와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합병주의자들의 친영적 기질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은 짐짓 “그들의 섬나라 근성을 초월하려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진취적인 욕망”(Beck 124)으로 내비칠 수 있으나, 지미가 아버지로부터 “식민지를 배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업적 가치”를 전수받아 “유럽대륙의 한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아버지의 열망”(Cheng 106-7)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쇼넨(shoneen)적 특성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가 세구앵(Segouin)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은 “인생의 참된 활력에 마술적 자극을 가하는 것”(38)이며, 팔리(Farley)의 요트에서 벌어지는 춤 놀이는 “세상을 사는 재미”(40)라고 인식하는 데서 확인된다. 그는 지배자들과 부르주아들의 특권을 즐기고 있다는 만족감에 사로잡혀, 이러한 특권을 경험하는 것이 곧 진정한 삶이라고 믿는다. 그는 더블린의 제한된 삶에서 벗어나 대륙적이고 국제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그가 판단하는 이상적인 삶은 곧 속물주의와 향락주의를 의미하며, 그의 모험은, “세련되고, 다양하고, 보다 폭넓은 삶을 추구하는 동쪽으로 향하는 형태”를 취하지만, “대륙을 향한 경직된 모험”(Ingersoll 94, 9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친영적 속물”의 전형으로 제시되는 것이다(Potts 78).

그렇지만 지미에게 인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미는 아침이 되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41). 이것은 자신

의 삶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순간의 자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당장 설 수 있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지 못한다. 무감각한 상태는 그의 어리석은 행위를 덮어줌으로써 오히려 그에게 위안을 가져다줄지 모른다.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위안이 될 수 없음에도, 그는 지금 당장 설 수 있는 마비의 심연이 오히려 따뜻하다고 느낄 뿐이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마비의 심연에 갇혀, 마비된 삶이 곧 그의 참된 인생이라고 믿으며 살아 왔고, 이제 그러한 삶이 마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פות이 인식하지만, 그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을 뿐이다.

「두 멋쟁이」(“Two Gallants”)의 주인공 레너헌(Lenehan)은 코얼리(Corley)를 비롯한 더블린 사람들처럼 마비된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는 듯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마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역사적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일랜드는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대영제국의 식민지배로 인해 수 백년 동안 참담하고 암울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는 대영제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이 단편에서 조이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대영제국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식민지 아일랜드의 젊은 청년들이 지닌 또 다른 제국주의적 태도이다.

코얼리는 우연히 만난 어떤 하녀를 육체적, 경제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으며, 레너헌은 하녀를 등쳐먹는 코얼리에게 빌붙어 기생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제2의 코얼리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인 레너헌과 코얼리는 자신들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의 주체이면서도 식민지화된 조국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또 다른 식민지 주체를 착취하고 지배하려는 인물들로 제시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알 수 있듯이 코얼리가 하녀에게서 갈취한 금화는 그가 지향한 최종적인 목표이다. 그가 하녀를 만나는 것은 육체적 욕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성적 거만함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는 오직 돈 때문에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Norris 1995, 34). 이와 같이 그의 행위는 “성행위를 상품거래로 전환하는 단호한 방법”(Leonard 125)에 의해 더욱 저속함을 더하고 있다.

코얼리는 이미 대영제국의 제국주의를 모방하여 이를 내면화하고 있는 반면,

레너헌은 이제 코얼리의 “제자”(55)가 되어 그의 제국주의를 학습함으로써 식민지화된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와 또 다른 식민지 주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레너헌은 제국주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마비된 삶을 어렴풋이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그는 이리저리 방랑생활을 하고, 무모한 짓을 하며, 속임수와 간계를 일삼는 일에 싫증을 느끼며, 지금까지 친구들이며 여자들과 실컷 돌아다녔지만, 그들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과 더불어 그는 자신이 곧 서른 한 살이 된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이제 좋은 일자리와 가정을 꾸려 따뜻한 난로 가에 앉아 멋진 저녁식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진다. 비록 이러한 인식의 순간은 짧고 또한 그의 상상 속에 국한되지만, 그가 자신의 마비된 삶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에 마비된 현실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추구할 의지를 실현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그의 마비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는 “돈을 좀 가진 착하고 순박한 처녀를 만날 수만 있다며, 이제 아늑한 구석진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52)이라는 희망을 가진다.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현재 그 자신이 살고 있는 기생적인 삶의 연속이거나, 혹은 그 보다 더 비열한 삶의 모습이다. 또한 이것은 그가 코얼리처럼 제국주의를 수단으로 또 다른 식민지 주체를 지배하고 갈취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궁핍과 억압된 정력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그에게 행복한 도피의 환상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그의 도덕적 불구를 극복할 수 없는 무능력을 보여준다”(Peake 25).

「하숙집」(“The Boarding House”)에서 작가는 결혼이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을 획득하는 수단이 되는 현실을 묘사함으로써 더블린 사람들의 또 다른 마비증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마비증상은 대영제국의 아일랜드 지배와 경제적 수탈, 그리고 그에 따르는 아일랜드의 경제적 궁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841년 이후 한 세기가 넘도록 아일랜드는 문명세계에서 가장 낮은 결혼율을 보였으며, 20세기 초기 3년간 아일랜드의 결혼율은 잉글랜드, 웨일즈, 덴마크의 절반 수준도 되지 않았다(Walzl 33-34).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은 여성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획득하는 방편이 되었고, 경제력은 남성들이 배우자를 얻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 결혼을 통해 표현되는 더블린 사회의 도덕적 마비는 무니부인

(Mr Mooney)과 그녀의 딸 폴리(Polly)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두 사람은 결혼을 “인간적 사랑과 신뢰가 아닌 사회적 지위와 돈이 관련된 사업”(Norris 1997, 156)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폴리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성다움을 매매”(Leonard 142)하는 인물이다. 주인공 도란(Mr Doran)은 이 두 사람과는 다소 다른 인물로 제시된다. 그는 자신이 마비된 환경의 압력에 굴복하고, 특히 자의적 현상에 따른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부재하는 결혼은 초월적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마비된 삶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하지만, 그 의지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

도란은, 34-5세의 성실하고 순진한 미혼 남성이 그럴 수 있듯이, 폴리의 유혹에 빠져 성적 욕망을 느끼고 그녀를 통해 느끼는 “황홀감”(62)이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사려 깊은 마음씨”(62)에 감탄하고 “아마도 두 사람이 함께 산다면 행복할 수 있으리라”(62)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황홀감은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62)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결혼의 순수성을 의심함으로써 마비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사회, 관습적 전통에 따라 결혼하면, 그도 「한 조각 구름」(“A Little Cloud”)의 리틀 찬들러(Little Chandler)와 「짝패들」(“Counterparts”)의 패링턴(Farrington), 그리고 『율리시즈』(Ulysses)의 도란과 같은 삶이 자신의 삶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는 죄를 저질렀지만,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재촉하고, “결혼하면 끝장이야”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하며(61),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그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도피하고 싶은” 욕망을 표출한다(63). 그러나 그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회적 평판과 체면을 중시하고,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영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니부인의 결혼 요청을 수락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주가 끝난 후」와 「두 멧쟁이」의 주인공들은 스스로 더블린의 마비된 상황 속에서 정신적, 도덕적으로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마비의 주체들이다. 「에블린」과 「하숙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그들 자신들이 마비의 전형이긴 하지만, 마비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비된 사회의 희생자들이다. 그러나 네 작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과 환경의 마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다시 마비의 중심으로 빠져버린다.

‘청년기’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마비, 인식, 마비’의 유형은 ‘성년기’에서 또 다른 양상으로 제시된다. ‘청년기’의 인물들은, 그들의 인식이 시작의지를 수반하지 못함으로써 일시적이고 무익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그래도 진정한 인식의 과정을 경험한다. ‘성년기’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역시 중심부재의 인식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인식은 소극적이고 오도되어 있으며, 모호하고 허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결과 그들은 원래의 마비된 삶으로 되돌아가거나 그 보다 더 마비된 삶을 선택함으로써 청년기의 인물들보다 더 마비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러므로 자연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피력하지 못한다.

「한 조각 구름」의 주인공 리틀 채널러는 자신의 삶에서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중심을 추구하며, 그 과정에서 또 다시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인식은 소극적 인식에 국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결국 중심부재의 진정한 인식에 도달하지 못하며, 그가 선택한 새로운 삶은 그의 삶을 창조적인 영역으로 이끌지 못한다. 채널러는 시인 지망생으로서 문학적 성공을 꿈꾸어 왔던 터에 친구 갤러허(Gallagher)가 런던에서 저널리스트로 성공하여 돌아오자, 그 사실에 더욱 자극을 받아 자신이 지금까지 간직해 왔던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들떠 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시인이 되지 못한 이유를 “그의 불행한 수줍음”(76)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채널러가 예술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더블린의 현실을 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블린을 떠나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더블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68). 이것은 조이스/스티븐의 신념과 일치하는 듯 보인다. 더블린은 예술가를 구속하는 마비된 도시이기 때문에 조이스는 더블린을 떠난 것이다. 그의 자의적 망명은 더러운 삶의 거부나 그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을 보다 충분히 관조할 수 있는 위치로 고의적으로 물러나는 것”(Ruoff 119)이며 예술가의 창조적 정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도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다. 반면, 채널러는 삶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는 예술적 충동과 비전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삶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진정한 예술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예술적 성향이다. 그가 영국의 비평가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의 “켈트적 특성”(69), 즉 우울증의 표현이다. 아일랜드 역사에서 ‘켈트의 여명’(the Celtic Twilight)으로 불리는 아일랜드 문예운동의 켈트파

시인들은 “모호하고 몽환적인 우울함”(Gifford 69)에 탐닉하고 그들의 문학은 켈트적 특성인 과거를 동경하고 또한 복원하려는 형태를 띠었으므로, 조이스는 그 운동을 과거지향적이고 낭만주의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챈들러의 문학적 사상은 조이스가 부정했던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는 감상주의에 사로잡혀 아일랜드성을 이용하여 영국문단에 진출하고자 하며, 이는 그가 민족적 정체성을 발판으로 자신의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의 시적 재능은 그가 시인으로 성공하기에 미숙한 것처럼 보인다. 그가 즐겨 읽는 바이런(Lord Byron)의 시는 그가 14세 때 쓴 서투른 작품이다. 챈들러가 이 시를 좋아하는 것은 그의 감수성이 미숙하고 유아적임을 반영한다.

이러한 시적 재능과 성향을 바탕으로 그가 진출하고자 욕망하는 런던의 저널리즘 세계는, 갤러허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되듯이, 제국주의 국가의 저속한 문화를 대변한다. 챈들러는 영국과 유럽대륙의 저속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갤러허의 말투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에 비위가 상하고 환멸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곧 그가 런던의 저널리즘계의 소란과 경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태도를 정당화한다. 외국의 여러 도시에 대한 챈들러의 의문은 저속한 문화에 대한 그의 비밀스런 동경을 나타낸다(Peake 29). 이와 같이 챈들러는 영국에서의 문학적 성공을 꿈꾸어 왔지만, 그 꿈은 갤러허가 이야기했던 돈과 관능적 쾌락을 지향하고 있다. 이제 챈들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가 아니라, 그 시가 그에게 가져다 줄 명성과 낭만적이고 황금빛을 발하는 안개인 것이다(Boyle 87).

그의 우울하고 과거지향적이며 미숙한 문학적 경향은 대륙의 감각적인 삶에 대한 동경과 결합됨으로써 더욱 마비된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느끼는 “생활에 대한 한 가닥 막연한 노여움”(79)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반응이며, 사회와 가정의 구속에 대한 분노이며, 문학적·세속적 욕망을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인 것이다. 그 노여움은 아이에 대한 폭력으로 표출되며, 그 폭력에 뒤따르는 아이의 울음소리는 그의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을 유발한다(81). 그러나 그 후회는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없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후회”이며, 그의 눈물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더욱더 불안한 삶”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기연민의 눈물”이다(Boyle 91). 그러므로 그의 반응은 그가 인생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슬퍼하듯이(66), “챈들러가 온종일 보여준 그의

행위의 적절한 표본”이다(Leonard 166). 그러므로 그는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시금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 마비된 삶, 균형 잡힌 삶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의 “부끄러움”과 “후회”는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도피하려 했던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식에는 예술적 본질과 자신의 예술적 재능에 대한 실체와 그가 동경하는 꿈의 실체, 자신의 문학적 특성의 실체, 그리고 그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간직한 시인의 꿈을 이름으로써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감각적인 삶의 실체에 대한 인식은 수반되지 않는다.

「작패들」의 패링턴(Farrington)은 자신의 삶에 불만을 느끼고 그 삶의 대안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심부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지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인식은 근원적 오류를 수반하고 있으며, 그에게 새로이 제시된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패링턴에게 직장은 “괴로운 일터”(88)이며, 직장에서의 삶은 “모욕적인 삶”(86)으로 인식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직장의 따분한 일이 아니라 그의 무능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달픈 직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술집의 안락함을 누리고 싶은 욕망”(88)을 실현하고, “한바탕 멋지게 놀아보는 것”이다(89). 이러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런던 말씨”(91)를 쓰는 여성에게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고, 영국인 웨더즈(Weathers)와의 팔씨름에서 승리함으로써 장사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불만족스런 삶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욕구는 있으나 돈이 없어 그녀를 유혹하지 못하여 굴욕감을 느끼며, 웨더즈와의 팔씨름에서도 두 번씩이나 패배함으로써 좌절감을 느낀다.

그는 술과 여자와 힘자랑을 통해 삶의 도피처를 찾고 상실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또 다른 도피처를 찾는다. 더욱 증가된 그의 불만은 식사를 준비해 놓지 않고, 난로 불을 꺼뜨렸다고 해서 어린 아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버릇을 고쳐주겠다고 지팡이로 아이를 두들겨 패는 것으로 표출된다. 그가 아이를 매질하는 것은 그의 심리적 좌절감의 표현이며, 또한 그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그는 구속에서 벗어나 좀더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지만, 그가 갈망하는 삶은 더욱

퇴보적이고 비생산적이며 폭력적인 삶이 될 뿐이다.

「진흙」(“Clay”)에서 주인공 마리아(Maria)는 결혼에 대한 희미한 욕망을 지니고 있으나, 그 욕망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없고, 그나마 “그러한 욕망을 확고하게 표명하지도 못한다”(Glasheen 104).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중심부재의 사실을 희미하게 인식하는 듯하지만, 그 인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지도 못하며, 무기력하게 현재의 삶을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그녀가 아일랜드 여성을 대변한다는 해석을 통해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이름과 성품에서 알 수 있듯이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그녀의 모습은 마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몸집이 매우 작은 사람”이지만 “매우 긴 코와 기다란 턱”을 갖고 있는(95) 그녀는 웃을 때 코끝이 턱 밑에 거의 닿을 듯하며 작은 몸이 흔들려 부서질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할로윈 전날 밤에 나타나는 마녀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이미지는 결국 영국에 다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로서의 “가련한 노파”(Poor Old Woman) 혹은 “아일랜드 그 자체”의 의미를 내포한다(Tindall 30). 그러므로 그녀는 영국에 자국의 이권을 빼앗기며, 자국 내의 정치적 내분을 수습하지 못하는 아일랜드를 대변한다.

세탁소에서 “아일랜드의 경제를 통제하는” 신교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친절을 베푸는 “진역한 영국군 장교”(Brown 280)로 보이는 낮은 “노신사”(98)의 호의와 친절에 당황하여 가족을 위해 준비한 케이크를 잃어버린 그녀는 영국이라는 외부 세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표면적 친절함에 당혹하여 이권을 빼앗긴 아일랜드의 모습을 나타낸다. 아일랜드는 사실상 수세기 동안 케이크를 잃어오고 있었던 것이다(Tindall 30). 그런데도 그녀는 잃어버린 이권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속상함과 실망감”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감정을 지닐 뿐이다(99-100). 또한 그녀는 앨피(Alphy)와 조(Joe)의 싸움을 수습하지 못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그것을 조용하게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이며, 조가 호두 까는 집게가 없다고 화를 내자 자신은 호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당시의 내분을 수습하지 못한 아일랜드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그녀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어 해결하기보다는 울분을 참고, 순간적인 불화를 피하기 위해 피상적인 평화를 추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국가적, 정치적 분규에 직면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지님으로써 그 분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무기력한 아일랜드의 상징이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의 2절을 잊어버리고 1절을 반복하여 부름으로써 자신의 삶을 반복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므로써 자신들의 정신적, 도덕적, 정치적 마비상황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특히 조는 그녀의 노래를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찾고 있던 것”(102)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러한 상황은 감상주의에 사로잡힌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자신들과 아일랜드의 마비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재함을 보여준다.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의 제임스 더피(James Duffy)는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믿고 추구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는 듯 보이지만, 그 인식은 허위적이고 무의미한 것이다. 더피는 감정의 불모성에 사로잡혀 사회적 교훈도 없이, 결혼과 사랑도 거부한 채 “혼자만의 영적 생활”(105)을 고집하여 왔지만, “대단한 감수성의 기질”(105)을 드러내 보이는 시니코 부인(Mrs Sinico)을 만나 정서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정말로 이상한 흥분된 모습”을 보이면서 “정열적으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표현하자 그 행위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서로간의 교제를 단절한다(107-8). “모든 인연은 슬픔을 낳는다”(108)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4년 후 우연히 그녀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자신이 신성하게 간직했던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던 일에 대해 화가 났으며”, 그 자신이 “그녀의 영혼의 반려자”였다는 것에 환멸을 느끼고, 그녀의 죽음을 “평범하고 저속한 죽음”으로 단정한다(111).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의문의 과정을 통해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고, 타자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실체를 인식하고 과거의 죽음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위한 교제와 접촉을 열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허한 이피퍼니”(Beck 234)가 될 뿐이다. 더피는 그녀가 죽은 뒤에야 그녀의 삶을 다소간 이해하는 듯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감으로써 “추억이 그에게 말해주었던 것들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한다(113-14). 그는 자신의 도덕성이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듯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공원의 담벼락 밑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질서정연함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그가 혐오하는 “더러운 욕망의 환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Ingersoll 130). 결국 그는 그녀와 함께 했던 추억과 그 추억을 통해 의식했던 그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고 과거의 균형 잡힌 삶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산산 조각이 났던 “그의 도덕성이 그

것의 완벽한 체제로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는 것이다”(Ingersoll 130). 그는 그녀의 이름의 음절을 되풀이하는 듯한 기관차의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그 결과 그녀가 더 이상 그의 가까이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없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그가 이제 그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며(Leonard 226),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다(Beck 235). 그러므로 더피가 습관적인 삶으로 귀환하는 것은 그의 인식이 자기방어적이며 감상적이고 허위적인 몸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청년기’의 주인공들은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다시금 마비된 삶으로 되돌아가지만, ‘성년기’ 작품의 주인공들은 ‘청년기’ 주인공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인식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나름대로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하지만, 그 인식은 진정한 의미의 인식이 되지 못하므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원래의 마비된 삶 혹은 그보다 더 마비된 삶의 영역으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상은 ‘공공생활’의 세 작품에서 더욱 심각한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심부재의 인식 가능성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의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위원회실의 파넬 기념일」(“Ivy Day in the Committee Room”)은 주로 당대 아일랜드 정치의 부패와 배신행위를 그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아일랜드의 민족 지도자였던 파넬(Parnell)의 서거 11주년이 되는 1902년 10월 6일이며, 공간적 배경은 파넬이 자신의 동족이자 정적들로부터 민족당 당수직에서 축출된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의사당 위원회실 15호를 상기시키는, 더블린시 로열 익스체인지 선거구(Royal Exchange Ward) 민족당 시의원 후보 티어니(Tierney)의 선거 사무소로 설정되어 있다. 조이스는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아일랜드의 정치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으며, 그 풍자는 주로 아일랜드인들의 정치적 부패와 배신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들은 각급의 정치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도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함으로써 조국의 암담한 정치 현실을 더욱 어둡게 할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믿고 있으며, 중심 부재의 인식에 대한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 못한다.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의 선거는 지지후보에 대한 배신과 변절로 점철

되어 있다. 오커너(O'Connor)와 헨치(Henchy)는 티어니의 선거운동원으로 일하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정치적 신념이나 소신도 없으며, 그를 신뢰하지도 않고, 선거운동에는 관심도 없으며, 오직 돈과 술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티어니를 배신하고 있다. 크로프턴(Crofton)과 라이언즈(Lyons)는 원래 아일랜드 자치안을 반대하고 “통합론을 옹호했던 보수당”(Fairhall 93) 후보 윌킨즈(Wilkins)의 선거 운동원이었으나 보수당이 후보를 내세우지 않게 되자 민족당 티어니 후보의 운동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이 아니라 돈 때문에 정치적 변절을 일삼는 당시의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 하물며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파넬을 배신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헨치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의 독립 단체인 공화국 동맹, 즉 “힐사이드 당원들과 페니언 당원들 중 몇몇은 다소 지나칠 정도로 약아빠진 사람들”이며, “그들의 절반은 정청에 고용되어 있다”(122). 당시 더블린 정청은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지배 활동을 위한 본거지였으므로, 그들이 그 정청에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파넬 이후 아일랜드 독립 단체의 구성원들이 영국 정부에 고용되어 그들의 밀고자 노릇을 했다는 것이다(Brown 289). 그들 중에는 아일랜드의 혁명가 에드워드 피츠제럴드경(Lord Edward Fitzgerald)과 로버트 에밋(Robert Emmet)을 체포할 때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자기 조국을 동전 세 닢에 팔아먹은 놈”이며 “전능하신 그리스도 앞에 꿇어앉아 팔아먹을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녀석”인 “씨 소령(Major Sirr)의 직계 후손 같은 녀석”도 포함되어 있다(122). 또한 티어니는 “대단한 지방세 납부자이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 세금 삭감을 주장하고, “빈민법 운영위원”(128)이면서 빈민들을 위한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물이며, 민족당은 이와 같은 인물을 선거 후보로 내세움으로써 그들의 왜곡된 정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선거 사무소에 모인 선거운동원들이 늘어놓는 영국왕 에드워드(Edward) 7세의 아일랜드 방문에 관한 담론은 정치적인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하인즈(Joe Hynes)는, 그의 옷깃에 담쟁이 잎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파넬의 추종자임이 분명하다. 노동당 후보인 콜건(Colgan)을 지지하는 하인즈는 “노동자는 ... 일개 독일 황제[영국왕 에드워드 7세]를 즐겁게 하기 위해 더블린의 명예를 진창에 빠뜨리지 않는다”(118)고 말하며, “만일 파넬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환영연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할 거야”(119)라고 호언장담하고, 헨치가 “파넬을 배반

한 일이 없는 사람”(130)은 하인즈 뿐이라고 공언하지만, 정작 하인즈는 노동당의 정치 노선에 따라 “에드워드 왕이 오면 만사가 잘 될 것”(121)이라고 말함으로써, 더블린의 명예를 진창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파넬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다. 헨치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자본”이며, “영국왕이 여기에 오는 것은 이 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고,” “더블린 시민들은 그것 때문에 이익을 얻게 될 것”(128)이라고 말함으로써 그의 방문을 옹호하고, 또한 라이언즈가 에드워드 왕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내버려 두라”고 하며, 은근히 “그를 개인적으로 존경한다”고 말한다(129).

그들은 자본의 유입을 통한 아일랜드 경제의 회생이라는 미명하에 영국왕의 방문을 정당화함으로써 파넬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다. 헨치의 주장은 당시 노동자 연합 진영의 주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Fairhall 95)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파넬의 정신을 배신하는 전형적인 인물”(Cheng 125)로 제시된다. 그의 주장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다. 자금의 유입은 아일랜드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국이 역사를 통하여 아일랜드인들을 매수하고 기만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곤 했듯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독립의지를 좌절시키고 아일랜드 식민 지배를 고착시키려는 영국의 또 다른 책략인 것이다. 실제로 더블린 자치체가 영국왕에 대한 환영 행사를 투표로 부결시켰지만, 더블린시 의회는 시의 경계 지역에서 영국 왕의 방문에 대한 영접행사를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1885년 에드워드 7세가 웨일즈의 왕자였을 당시 그의 아일랜드 방문을 반대했던 파넬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다. 영국 왕의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는 영국왕에 대한 충성과 영국의 식민지배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Gifford 91). 파넬의 정신을 계승한 민족당의 후보 티어니도 환영 연설의 가부를 묻는 투표에서 찬성할 것이라는 것은 그 역시 파넬의 정신을 배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파넬이 죽은 이후 아일랜드에서 전개되는 정치적 배신행위를 풍자하고 있다.

그들의 배신행위는 하인즈가 낭송하는 시와 그 시에 대한 좌중의 반응을 통해 다시 강조된다. 그 시는 “무관의 왕” 파넬의 죽음을 애도하지만, 자금의 상황에서 크로프턴이 말한 것처럼 “정말 훌륭한 한 편의 시”(133) 그 이상의 어떠한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하인즈의 시는 애국적 감상주의로 가득하며,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 또한 감상적인 반응을 보일뿐이다. 이들의 감상주의는 파넬 이후의 감상적 민

족주의를 대변한다. 이와 같이 더블린의 성인들은 그 누구도 자신들의 마비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며, 오직 “기꺼이 억압받는 자들”(35)이 되기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A Mother”)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문예부흥운동에 대한 조이스의 비판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조이스는 특히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해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여성을 배척하는 민족주의 문예부흥운동의 이율배반성을 그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머 놀란(Emer Nolan)은 아일랜드 민족주의 운동이 여성을 주변화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과 어머니의 이미지로 형성되는 여성다움을 상징적으로 폭넓게 전개하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한다(167).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일랜드 독립협회(Eire Abu Society)가 민족주의 문예부흥운동의 취지에 따라 음악회를 준비하지만,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내세워 여성을 주변화함으로써 그 음악회를 망쳐버린다는 더블린 문화계의 마비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중심으로 인식함으로써 중심부재의 인식이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

커니부인(Mrs Kearney)은 연주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공연료 문제가 불거지자 “위원회가 자신을 모욕적으로 대했다”(146)고 말하면서, 위원회라는 남성중심적 사회에 저항하여 그들의 잘못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무능한 모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들 자체의 허구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무능함을 애써 감추고, 여성을 주변화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행사하고자 한다. 사실 위원회는 연주회의 프로그램도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연주회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며, “신통치 않은” 가수들을 섭외함으로써 그들의 무능한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니부인의 여성다움을 문제 삼아 자신들의 “추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회고 멍청하게 생긴 작은 체구”에 부드러운 갈색 중절모를 “아무렇게나 빼딱하게” 쓰고 “억양도 없는”(137) 말투를 사용하고 “얼빠진 미소”(138)를 짓는 협회의 사무장인 피츠패트릭(Mr Fitzpatrick)은 위원회의 실체를 짐작하게 하는 인물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실체는 절름발이 홀로헌(Mr Hollohan)의 모습에 투영되어 강조되기도 한다. 홀로헌의 무능력은 그가 거의 한 달 동안 음악회를 준비하느라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쫓아다녔지만 “결국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커

니부인이었다”(134)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그는 커니부인이 “숙녀”(147)인 점을 부각시키고 그녀의 행동이 숙녀답지 못함을 상기시킴으로써 위원회의 남성적 권위를 지켜내고자 노력한다. 피츠패트릭과 홀로현으로 대변되는 “위원회는 그들의 상대가 소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녀를 경시할 수 있었고,” “만약 그녀가 남자였다면 그녀를 그렇게 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146).

오머든 벅(O'Madden Burke)은 남성적 권위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 음악회는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연주회였으며 “이것으로 캐슬린(Kathleen) 양의 음악적 생애는 더블린에서 끝났다”(146)고 말하는데, 이것은 캐슬린의 음악적 재능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커니부인의 숙녀답지 않은 행동을 평가한 것이다. 그는 “우산에 몸을 기대 채” 홀로현씨에게 그가 “바르게 처신했다”고 말함으로써 위원회 측의 편을 들어 커니부인의 처사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단정한다. “영국화된 아일랜드 신사의 이미지”(Ingersoll 142)를 지닌 그는 남성적, 영국적 우산에 기대어 아일랜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일랜드의 남성중심 사회를 주도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은총」(“Grace”)은 당대 아일랜드 종교의 마비된 모습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작품은 파우어씨(Mr. Power)가 커넌부인(Mrs. Kernan)이 남편에 대해 불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그를 피정에 참가시켜 “새사람”(154)으로 만들고 “신실하고 독실한 카톨릭 교도로 만들어 보고자”(170)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신부와 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인물들은 한결같이 왜곡된 신앙을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신앙을 절대적인 중심의 개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중심부재의 인식에 이르지 못하는 인물들로 제시된다.

종교의 마비된 모습은 등장인물들의 신앙과 신부의 설교를 통해 드러난다. 커넌(Mr. Kernan)의 마비된 모습은 그가 술에 취해 술집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몸을 웅크린 채 오물위에서 입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모습에서 상징적으로 제시된다. 커넌을 목상기도회에 참석시켜 그를 교화시키고자 하는 친구들이 커넌의 방에 모여 술잔을 주고받으며 벌이는 토론은 더블린의 타락한 종교와 신앙의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그들은 신앙보다 교회의 규모와 권위와 영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일랜드의 종교는 종교의 본질 즉, 신부들의 설교 내용과 신앙에 의해 기억되지 않고 그들의 사회적 권위와 외모와 세속성과 웅변 스타일과 목소리에 의해 기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신부의 설교 내용은 당시의 부패하고 타락하고 탐욕스런 종교의 실상을 대변한다.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일랜드는 대영제국의 식민지배와 경제적 수탈로 인해 경제적으로 극도의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예수회가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종단이며,” “예수회의 총회장은 교황 다음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외형적 성장을 거듭하여 그 교세를 끝없이 확장했고, 그 결과 교인들은 “일이 잘 되길 원한다면, 확실히 예수회 교인에게 가야한다”고 믿는다(163). 아마도 그것은 교회가 신도들의 영적인 생활은 뒷전으로 미뤄두고 궁핍한 신도들에게서 헌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골몰했음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조이스의 지적처럼 “아일랜드는 영국에 착취당하고 있음에도 교황에게 바칠 헌금을 늘리면서 신과 재물을 함께 섬겨왔던 것이다”(CW 190).

성경은 “신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말라”(Luke 16:13)고 가르치지만, 퍼든 신부(Father Purdon)는 예수가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교훈의 진의를 왜곡함으로써 신도들이 신과 재물을 함께 섬기도록 허용한다. 그 비유는 청지기의 부정을 알고 있는 주인이 청지기가 부정한 재물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구로 사귀게 함으로써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세속의 자녀들이 그들끼리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현명하다”(173)는 말을 통해 빛의 자녀들도 세속의 자녀들이 세속적 거래에 밝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영접받을 처소를 마련하라고 암시한다. 그러나 신부의 설교는 예수의 교훈을 호도하여 사업가들의 세속적 흥미와 욕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적당히 세속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정하게 모은 재물을 자신들의 영적 회계장부의 수지를 맞추는데 사용하기를 권고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마비된 아일랜드 사람들이 회개하여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영혼과 신앙심을 더욱 마비시킴으로써 교회의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조이스는 퍼든 신부의 이러한 정신적 마비를 그가 설교를 하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설교단으로 올라가는” 모습(173)과 신부의 이름을 “더블린의 흥등가”(Gifford 104)의 이름과 연관시킴으로써 당시 종교의 부패한 모습을 경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생활’의 세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은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지닌 관념을 중심이라고 믿음으로써 중심부재에 대한 어떠한 인

식의 가능성도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위원회실의 파넬 기념일」에서 자국의 정치 개혁과 독립을 향한 시작행위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어머니」에서 아일랜드 문예부흥운동의 근본 취지를 되살려 민족적 자긍심을 양양하고 조국의 독립을 앞당기는 새로운 시작행위를 실현하지 못하며, 「은총」에서는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더블린 사람들』에서 제시된 마비의 주제는 「죽은 사람들」의 주인공 게이브리엘에게서 그 절정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여러 인물들과는 달리 중심이 부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피력한다. 이 작품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경은 게이브리엘의 두 이모인 케이트(Kate)와 줄리아(Julia)의 집에서 진행되는 연회장면이다. 이 연회는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죽음의 무도회”(Tindall 43)이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적으로 마비된 인물들이다. 게이브리엘은 이 연회에 참석한 마비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비평가들은 그를 정신적으로 “죽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죽은 사람들의 일원”(Walzl 424)이며, “마비의 중중에 걸린 사람”(Benstock 154)이라고 지적한다. 이것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초월적인 중심’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게이브리엘은 거의 모든 면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작은 세계”(Daiches 34)에서 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의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중심주의,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확인된다. 그는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부장중심적이며, 영국식민제국의 압제자들과 상징적으로 공모하는 잠재적으로 억압적인 가장의 적절한 표상이다(Cheng 26). 성관계에 있어서 그는 남성중심적이며, 그의 전망은 동부가 상징하는 제국주의와 남성성의 세계이다. 이와 같이 그의 가부장 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는 그의 제국주의적 관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구축함으로써, 타자, 특히 가족 구성원과 여성을 식민지화하며, 이러한 자신의 관념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대륙의 제국주의에 의존하고, 자기 민족에게 제국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이것은 지배자의 삶을 모방하여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피지배자의 원망으로 표출되며, 강자의 규범을 받아들여 약자인 동족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게이브리엘은 대륙적이고 영국적인 영향에 의해 규정된 문명화된 문화적 규범에 사족을 쓰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된다(Cheng 37-38).

그러나 그는 외적 및 내적 요인에 의해 점차 변화된다. 릴리(Lily)와 아이버즈에 의해 그의 이기주의가 조금씩 와해되듯이, 결국 그는 아내의 사랑을 인식하고 아내가 그토록 원하던 서부로 여행할 것을 결심함으로써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물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인식하고 “그의 정체성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Walzl 429). 그의 이러한 인식은 자아인식, 여성성의 인식, 타자성의 인식, 죽음의 인식, 아일랜드성의 인식, 아일랜드의 현실인식을 의미한다. 이제 그는 그레타(Gretta)의 개체와 주체를 인정하고, 차이의 장벽을 허물고, 관용과 동질성을 인식하고, 타자를 주체로 수용하며, 타인과의 영적 결합과 세상과의 새로운 동일의식을 인식한다. 이와 같이 게이브리얼은 죽은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살아 있는 사람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자신의 관념을 중심으로 믿고 마비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변화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 작품에서 소년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마비된 더블린 사회를 통해 중심의 부재를 인식한다. 하지만 ‘청년기’에 이른 더블린 사람들은 마비된 주변환경과 그 환경으로 인해 스스로 마비됨으로써 마비된 영역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들은 주변환경과 자신들의 삶에서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시작 의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다시금 마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장년기’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심부재의 사실을 인식하는 듯하지만, 그 인식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지 못하므로, 원래의 마비된 삶으로 되돌아가거나 그 보다 더 마비된 삶을 선택하게 된다. ‘공공생활’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마비된 삶을 중심으로 믿음으로써 중심부재의 인식 가능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 『더블린 사람들』의 종장인 「사자들」에서 게이브리얼은 가장 심각하게 중심의 현존을 믿고 있지만, 그 중심의 부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마비상황에 빠진 더블린 사람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작품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이 중심부재를 인식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희망적이고 대륙적이며 범세계주의적인 삶의 비전을 암시한다. 그는 『더블린 사람들』에서 더블린 사람들이 중심의 현존을 믿는 자신들의 관념을 해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역설함으로써, 중심 부재의 인식과 새로운 시작행위의 반복을 통해 초월적 대상에 접근하려는 무한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해체주의는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과 인류의 정신적 각성을 촉구하는 그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이론적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안동대)

인용문헌

- Adams, Robert M. "A Study in Weakness and Humiliation." Baker and Staley 101-4.
- Baker, James, and Thomas Staley, eds. *James Joyce's Dubliners: A Critical Handbook*. Belmont: Wadsworth, 1969.
- Battaglia, Rosemarie Angela. "Presence and Absence in Joyce: Heidegger, Derrida, Freud." Diss. State U of New York, 1985.
- Beck, Warren.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rham: Duke UP, 1969.
- Benstock, Bernard. "'The Dead': A Cold Coming." *Critical Essays on Joyce*. Ed. Bernard Benstock. Boston: G. K. Hall & Co., 1985. 148-62.
- Boyle, Robert. "A Little Cloud." Hart 84-92.
- Brooks, Cleanth, and R. P. Warren. "The Chalice Bearer." Baker & Staley 93-96.
- Brown, Terence, ed.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 Brunsdale, Mitzi. *James Joyce: A Study of the Short Fiction*. New York: Twayne Publishers, 1993.
- Cheng, Vincent J. *Joyce, Race, and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95.
- Collins, Bell L. "'Araby' and the 'Extended Simile.'"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Dubliners*. Ed. Peter Garrett. New Jersey: Prentice-Hall, 1968. 93-99.
- Corrington, J. W. "The Sisters." Hart 13-25.
- Daiches, David. "Dubliner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Dubliners: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Peter K. Garrett. New Jersey: Prentice-Hall, 1968. 27-37.
- Derrida, Jacques. "Structure, Sign, and Play in the Discourse of Human Sciences." *Writing and Difference*. Chicago: U of Chicago P, 1978. 278-93.
- _____. "Différance." *Margins of Philosophy*. Trans. Al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2. 1-27.

- Fairhall, James. *James Joyce and the Question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P, 1993.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2nd ed. Berkeley &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2.
- Glasheen, Adaline. "Clay." Hart 100-106.
- Hart, Clive, ed. *James Joyce's Dubliners: Critical Essays*. London: Faber & Faber, 1969.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P, 1996.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 Kaye, Julian B. "The Wings of Daedalus." Baker and Staley 87-92.
- Leonard, Garry M.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Syracuse: Syracuse UP, 2003.
- Litz, A. Walton. *James Joyce*. Boston: Twayne, 1966.
- Magalaner, Marvin. *Time of Apprenticeship: The Fiction of Young James Joyce*. London: Abelard-Schuman, 1959.
- _____. *James Joyce: The Man, the Work, the Reputation*. New York: New York UP, 1956.
- Mason, Ellsworth, and Richard Ellmann, ed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London: Faber and Faber, 1959.
- Nolan, Emer. *James Joyce and Nationalism*.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5.
- Norris, Margot. "Gambling with Gambles in 'Two Gallants.'" *Novel: Forum on Fiction* 29.1 (1995): 32-45.
- _____. "Narrative Bread Pudding: Joyce's 'The Boarding House.'" *European Joyce Studies* 7 (1997): 143-66.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 Potts, Willard. *Joyce and the Two Irelands*. Austin: U of Texas P, 2000.
- Riquelme, John Paul. *Teller and Tale in Joyce's Fiction: Oscillating Perspective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83.

- Ruoff, James. "'A Little Cloud': Joyce's Portrait of the Would-be Artist." Baker and Staley 107-20.
- Said, E. W. *The World, the Text, and the Critic*. Massachusetts: Harvard UP, 1983.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Noonday, 1959.
- Walzl, Florence. "Dubliners: Women in Irish Society." *Women in Joyce*. Ed. Suzette Henke and Elaine Unkeless. Sussex: Harvester P, 1982.
- Wicht, Wolfgang. "Eveline and/as 'A Painful Case': Paralysis, Desire, Signifiers." *European Joyce Studies: New Perspectives on Dubliners*. 7 (1997): 115-42.
- Wohlpert, A James. "Laughing in the Confession-box: Vows of Silence in Joyce's 'The Sisters.'" *JJQ* 30(1993): 409-18.

Abstract

Joyce's Deconstruction: The Absence of Center and Its Recognition in *Dubliners*

Sanghyo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 deconstructive aspect, the absence of center and its recognition in *Dubliners*, on the basis of Derridean deconstructive theory. Derridean deconstructive theory is generally divided into two aspects: deconstructing the presence of center represented in structuralism and hierarchy in Western philosophy. In the former, applying the concept of "différance" to the structuralist concept of sign, Derrida converts the structuralist meaning, that is, the presence of center, into the absence of center. In this theory, "new beginning" is always presupposed by "différance."

In his writing *Dubliners*, Joyce said, "My intention was to write a chapter of the moral history of my country and I chose Dublin for the scene because that city seemed to me the center of paralysis"(*Letters* 83). As he said, the main theme of *Dubliners* is paralysis, which is represented by both the Dubliners' belief in the presence of center and their inability to deconstruct the belief and to start their new life. Like this, the structuralist concept is predominant in *Dubliners*. Even though he discloses the structuralist condition of Dubliners in almost all the stories of the novel, Joyce finally aims to make them recognize their realities, deconstruct them, and begin their new life.

In the "childhood stories," Dubliners are paralysed, but the boy heroes recognize that Dubliners are paralysed. This shows the boys' recognition of the absence of center and the expression of their possible new life. But it seems very difficult to expect Dubliners to assert their will to begin their new life in the later stories, whether they recognize their paralyzed situation or not. In the "adolescence

stories," as with the boy heroes in the previous stories, the protagonists realize the absence of center, but they have lived so long in their paralysed circumstances that they cannot exert their will to begin their new life. In the "stories of mature life," the main characters also recognize the absence of center, but because their recognitions are passive, misdirected, obscured, and untrue, naturally they cannot direct their life to their creative life. In the "stories of public life," Dublin adults believe in the presence of center more seriously. In the coda, "The Dead," Gabriel Conroy, the representative of the paralyzed Dubliners, at first is spurred on by his belief in the absence of center, but he, in the end of "The Dead" and *Dubliners*, gets to the recognition of the absence of center, and shows his will to begin his new life.

Although Joyce describes Dubliners as paralysed, he conclusively expresses a deconstructive aspect of Dubliners through Gabriel's deconstructing his own closed world and beginning his new life. It is Joyce's deconstructive aspect that makes Dubliners become aware of their paralysis, and exert their will to begin their new life full of creative, continental, and cosmopolitan points of view.

■ Key words : paralysis, recognition, Derrida, deconstruction, presence of center, absence of center, beginning will (마비, 인식, 데리다, 해체, 중심의 현존, 중심의 부재, 시작의지)